CHALLENGE
CREATIVE
POSITIVE

2012 Taeyangmetalindustrial 태양가족

도전 · 창의 · 긍정

since 1954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기업 – 태양금속공업(주)

www.taeyangmetal.com

2012 임진년

용약운진

龍 躍 雲 津

'용이 구름을 헤치고 하늘로 솟아오른다.'

2012년! 용의 기운을 받아
우리 태양가족들
소망하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건강하고 뜻깊은 한 해 만들며
행복하고 활기차게 비상하시길 기원합니다.

CONTENTS

2012 Taeyangmetalindustrial

04 **창업주의 가르침** | 창업주의 가르침

06 **회장님 사외동정** | 회원사 경영컨설팅지원사업 전문위원 위촉 外

08 **언론에 비친 우리회사** | 경기도 '경영닥터' 프로그램, 1500억원 매출 증가 기여 外

10 **태양뉴스** | 일본 SHIROKI Corporation 공장장 타루타니 카즈오 일행 당사 방문 外

12 **신년사**

14 **VISION 2012** | 태양금속의 VISION 및 경영이념

16 **태양인** | OB 인터뷰

18 **기획특집1** | 품질 및 불량률 제로 도전 / 디포스페이팅(DEPHOSPHATING)

20 **기획특집2** | 기술연구개발 / 프로세스 접근방법

22 **온고지신** | 명예회장님의 말씀 및 경영노하우

24 **협력업체 탐방** | 선진금속 / 홍성협 대표

26 **문화와 예술** | 웃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명약

27 **발길따라서** | 통영

30 **사우동정**

11

16

24

27

태양금속공업(주) '태양가족' 사보

발행일 2012년 1월 25일 | **발행인** 한우삼 | **발행처** 태양금속공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5번지 031)490-5555 www.taeyangmetal.com
기획 · 편집디자인 큰하늘 031)402-0876 | **사진** 유광식

신용은 돈만 가지고도 힘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이 없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용있는 사람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외롭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생활이란 바로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신용에 가장 치중하고 동시에 실력과 신의를 강조하여 이 세가지 항목을 사훈으로 정한 것입니다.

「1988. 4. 5 회장 취임사」중에서

7월 26일 (화)

회원사 경영컨설팅지원사업 전문위원 위촉

안산상공회의소는 7월 26일(화) 회원사의 경영 진단 컨설팅을 위해 경영자원연구소의 김원경 고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한창모 교수, 노무법인 상생의 최지희 노무사 등 3명을 『경영컨설팅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품질관리 및 원가절감, 국제규격인증 및 사후관리(KS, JIS, ISO 등), 핵심성과지표(KPI) 도출 및 평가제도 구축, 조직관리, 목표관리, 리더십, 코칭스킬, 인사노무관리, 노사전략, 노동법관계규정, 노무관리 진단 및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8월 30일 (화)

제35회 지역혁신경영인포럼 개최

안산상공회의소는 8월 30일(화) 7시 30분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홀에서 '2012년 중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제35회 지역혁신경영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삼성경제연구소 엄정명 수석연구원이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안산지역 기업의 CEO 및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에 앞서 안산상의 한우삼 회장은 "2000년대 이전의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이제는 소득증가로 '세계의 시장'이 되었다"며, "G2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중국의 경제 변화를 바로 알고 새로운 기회와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22일 (목)

제97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개최

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우삼, 이하 안산상의)가 9월 22일(목) 7시 30분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홀에서 '선제적 위기관리를 통한 지속성장 실현'을 주제로 『제97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서울대학교 조동성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안산지역 기업의 CEO 및 임직원 130명이 참석했다. 안산상의 한우삼 회장은 "기업 경영에 관한 비유로 매일 길을 내며 산을 오르는 것, 풍랑을 헤치며 항해하는 것 등이 있다"며, "이러한 비유들은 하나같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26일 (수)

글로벌비즈니스 CEO 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개최

안산상공회의소는 10월 26일 (수) 회의실에서 『글로벌비즈니스 CEO 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남석유공업(주) 노충석 대표이사 등 11명이 참석하여 포럼의 운영 방향, 회장 선출에 관한 내용으로 총회를 실시했다.

이날 총회에서 노충석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주)서비스엑설런스 연구소 부연선 원장을 초빙하여 비즈니스 매너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회장님 사외동정

10월 26일 (수)

제36회 지역혁신경영인포럼 개최

안산상공회의소는 10월 26일 (수)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홀에서 '2012년 세계경제 전망'을 주제로 『제36회 지역혁신경영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이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안산지역 기업의 CEO 및 임직원 16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에 앞서 안산상의 한우삼 회장은 "금융위기를 맞았던 세계경제가 각 국 정부의 재정확대 등 경기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섰다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에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쉼 없이 변해야 한다.'는 뜻의 응형무궁(應形無窮)이라는 말처럼 오늘 포럼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11월 8일 (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위촉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이 11월 8일(화) 안산시청에서 개최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위촉식』에서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안산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각 분과 별로 2~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11월 15일 (화)

제98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개최

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우삼, 이하 안산상의)가 11월 15일(화)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홀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과 이슈 점검'을 주제로 『제98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안산지역 기업의 CEO 및 임직원 120명이 참석했다.

강연에 앞서 안산상의 한우삼 회장은 "세계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미시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내년에는 보다 준비된 상태로 기업 활동을 해 보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련을 겪고 난 후에야 진정한 내 사람이 보인다'는 뜻의 질풍경초(疾風勁草)를 '지금의 이 경제 질풍을 극복한 후에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태어난다.'라는 재해석을 제안"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대내외적인 위험요소들을 세심히 되짚어보고, 우리 기업이 질풍경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언론에 비친 우리 회사

2011년 11월 29일(화) 매일경제

경기도 '경영닥터' 프로그램, 1500억원 매출 증가 기여

경기도는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우량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영닥터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올해 인지콘트롤스(주), (주)마니커, (주)에쓰푸드, 태양금속공업(주), (주)유텍솔루션 등 5개 업체를 선정해 경영닥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서울대 경영대학과 협약을 맺고 우량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략문제에 대해 기업진단, 전략검토, 대안제시의 과정을 거쳐 해당 기업의 신사업전략 개발, 경쟁력 강화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원받은 기업은 (주)퍼시스, 내쇼날푸라스틱(주), (주)진성티이씨, (주)성주음향, (주)디지아이 등으로 5개 기업의 2010년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1491억원이 증가하고 29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정구용 인지콘트롤스(주) 회장은 "국내시장에서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입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번 컨설팅이 해외투자전략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선철 (주)마니커 대표는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은 물론 임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며 참여직원들을 독려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제헌 (주)유텍솔루션 대표는 "주요 원자재인 구리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원자재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기도. 홍기화 경기중기센터의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경영닥터사업은 글로벌기업으로 가기위한 기업의 준비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경기중기센터 SOS지원팀 031-259-6115

2011년 12월 5일(월) MT 머니투데이

태양금속 '3세 경영 시작' … "글로벌 기업이 목표"

한성훈 사장, 중국 · 인도 공장 확장…"2015년까지 자동차 냉간단조 톱3"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는 부담이 크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지난 8월 태양금속 (7,200원 10 -0.1%)공업 대표이사로 취임한 한성훈(한하워드성) 사장을 5일 경기 안산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할아버지인 고 한은영 명예회장, 아버지 한우삼 회장에 이어 태양금속공업 경영일선에 나섰다. 한 사장은 57년간 이어온 회사를 더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전세계에 '태양금속공업'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 냉간단조 전문기업으로, 주로 자동차부품을 연결하는 볼트와 너트를 생산한다. 지난해 매출 2610억원, 영업이익 7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각각 34.8%, 21.7% 증가한 규모다.

한 사장은 "올해도 지난해보다 10% 안팎의 성장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경기가 불확실하고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는 만큼 해외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일선에 나서기 전 주로 해외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꿈을 키웠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대에서 경영학석사학위(MBA)를 취득했다. 2007년 태양금속공업 부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미국 제약업체 백스터, 컨설팅업체 ADL, 삼정KPMG 등에서 기업 인수 · 합병, 경영자문,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태양금속공업 부사장을 맡은 뒤부터는 전략 및 기획에 힘을 쏟았다. 이때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선행연구 · 개발팀을 만들었다.

한 사장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열망은 서서히 영글어가고 있다. 태양금속공업은 국내뿐 아니라 인도에 1개, 중국에 2개 공장이 있다. 2013년까지 해외공장의 생산능력을 20~30%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0억원 이상 투자했다. 올해 현양을 비롯해 2개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다. 한 사장은 "2015년까지 전세계 자동차 냉간단조시장에서 '톱3'에 드는 게 목표"라며 "유럽시장의 문도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진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신소재를 활용, 무게를 줄인 부품 개발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한국철강신문 2011년 12월 12일(월)

〈무역의날〉태양금속공업,
최고 기술력 바탕 1억불 수출탑 수상
최적 글로벌 공급체계 구축‥전년比 수출 실적 23%↑

국내 최대 파스너업체인 태양금속공업(회장 한우삼)이 제48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1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3천만불, 2006년 5천만불, 2008년 7천만불 수출탑에 이어 올해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태양금속공업은 냉간단조제품을 전문 생산하는 자동차부품회사로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외 자동차 완성업체에 다양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0년도 현대·기아자동차 품질 5스타 인증을 받은 바 있을 정도로 품질 경쟁력이 뛰어나다.

국내 및 북미, 인도, 중국 등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 세계 각국의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글로벌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에 주력품인 자동차부품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약 23%가 신장하는 등 수출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태양금속공업 한성훈 사장은 "2015년까지 전세계 자동차 냉간단조시장에서 '톱3'에 드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에는 엔진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신소재를 활용한 부품 경량화 개발을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차종혁기자 / jhcha@kmj.co.kr

etnews.com 전자신문 2011년 12월 21일(수)

문화부, 2011년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우수 기업 9개 업체 시상

현대백화점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우수기업에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1일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가 우수한 9개 업체를 '2011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우수기업'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 업체로는 현대백화점, 건화, 그린손해보험, 에이치텍이엔지, 한국수력원자력, 태양금속공업, 코바이스, 한국로버트보쉬 등이다. 공공기관으로는 서귀포 시청이 선정됐다.

앞서 문화부 저작권 경찰은 올해 단속한 900여개 기관 중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100%인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인터넷(IT) 자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 강화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체계가 우수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낮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TAEYANG news 2011.9~2012.1

우리 회사에는 지난 넉달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회사의 이런저런 소식... **한눈에 알아보자!**

2011. 09. 27 (화)

지난 9월 27일(화) 일본 SHIROKI Corporation 공장장 타루타니 카즈오 外 3명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이날 회사소개 및 공장견학을 실시하고, 견적 진행중인 ITEM들에 대한 기술 미팅 및 견적 미팅을 실시하였다.

2011. 09. 28 (수)

9월 28일(수) 미국 GMNA 엔지니어 Rick Wallace 外 5명이 Wheel Stud & Nut Supplier Trip Plan에 관심을 가지고 당사를 방문하였다. 이날 당사의 품질 우수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신규 RFQ 수주관련 협의를 하였다.

2011. 10. 16 (일)

지난 10월 16일(일) 태양 OB회 현판식이 우리 회사 풍납빌딩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한우삼 회장을 비롯한 태양 OB회원 20여명이 참석하여 현판식 행사를 축하하였고, 앞으로 우리 회사 및 태양OB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의 건강을 축원하였고, 조촐한 뒷풀이 행사를 하며 친목을 도모하였다.

2011. 10. 27~28 (목,금)

지난 10월 27~28일(목,금)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적합성 및 효과적 실행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심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품질부문에서는 현대 · 기아 품질5스타 평가를 대비하여 품질경영체제 평가시트를 활용한 사전 심사를 병행하였으며, 3자 인증심사와 동일한 프로세스 어프로치 심사방식으로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1. 11. 02 (수)

11월 2일(수) 미국 GMNA Steven Kwong 外 4명이 당사를 방문하여 회사소개 및 밴치마킹룸, 공장견학을 실시 하였다. 이번 방문 목적은 GMPT에 등록하기 위한 과정의 공정감사를 하기 위함이다. 이날 전부서에서 기업에 필요한 개선책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며 프로세스 접근방식에 의한 고품격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GMPT에 등록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2011. 11. 05 (토)

지난 11월 5일(토) 한국지엠 협신회 주관 2011년 봉사활동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에 한우삼 회장이 참석하여
손수 사랑의 김장 김치를 만들었으며, 협신회 수석 부회장 자격으로 격려사와 인천지역 불우한 이웃돕기에 써달라고 김장 김치와 상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였다.

2011. 11. 11 (금)

현대 · 기아 주관, 협력사 품질5스타 품질부문 품질경영체제 평가가 지난 11월 11일(금) 품질평가팀 권용무 과장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번 평가는 품질5스타 등급에 맞는 디테일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현장 중심의 품질은 물론, 작업자 안전과 환경적인 측면이 평가되었다. 당사는 현재 품질5스타 등급이며, 최고 등급인 그랜드 품질5스타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2011. 11. 16 (수)

11월 16일(수) 일본 JCI (Johnson Controls) Japan 아메미야 다카시 차장 外 4명이 당사를 방문하여 회사소개 및 벤치마킹, 공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우리 회사 프로세스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1. 11. 17~18 (목,금)

지난 11월 17일~18일(목,금) 2일간 팀별 프로세스 관리자 17명을 대상으로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2011프로세스 어프로치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ISO/TS 16949 교육은 물론, 팀별 프로세스 입/출력을 재설계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성과지표의 향상 방안과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계성을 검증하여 24종의 프로세스를 완성하고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의사소통의 장이 되었다.

2012. 01. 02 (월)

1월 2일(월) 오전 8시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신년하례식을 겸한 2012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 시무식에는 2011년도 회사 모범사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한우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1년도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태양금속 전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올해의 경영방침을 "새로운 도전과 변화로 새로운 비젼을 창출하자!"로 정하고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과 태양가족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기업문화를 창출하여 본격적인 성장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자고 당부하였다.

2012. 01. 07 (토)

지난 1월 7일 2012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의 의지를 다짐하고 신년의 각오와 업무에 임하는 새로운 다짐을 공고히 하는 시무식 산행이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한우삼 회장 外 태양금속공업(주), (주)썬테크, (주)신일 · 현양정공 임원 및 팀장과 송병천 노조위원장 등 54명이 참석하였고, 한우삼 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2012년에는 매출액 1조원 달성의 기반을 세울수 있도록 전임직원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직원 개인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였다.

친애하는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희망찬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태양금속 임직원 모두에게 소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태양금속의 성장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합니다.

2011년도 우리 회사는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이라는 경영방침을 토대로 내실과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영업력 향상, 기술 및 품질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의 피와 땀의 노력 덕분에 제품 총생산량은 약 80,000톤을 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1년도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세계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외적, 내적 충격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기회복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소비가 위축되었고, 일본 대지진은 세계 경제 3위인 일본을 마이너스 성장케 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도 교란시켜 세계적인 생산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들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세계적인 주가 급락,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물가상승 등 이로 인해 성장둔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2012년 올해도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심화, 국가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환율급변 등 외환시장 혼란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 국가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경기침체, 소비위축, 고용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경제는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수출의 경기주도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수출의 높은 성장이 내수경기로 파급되지 못한 것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회사는 제48회 무역의 날 행사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가가 세계위기 당사자인 유럽과 미국 못지 않게 급락세를 보이는 것은 금융시장의 높은 개방외에 높은 수출의존도와 수출 주력제품의 경기 민감성 등의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회사는 몇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8월에 (주)신일정공, 현양이 태양금속의 한가족이 되어, 기존 (주)썬테크, 북미법인, 인도법인, 중국 연대 및 장가항법인 등 총 7개의 계열회사를 가진 그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성훈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9월에 현대/기아(자) 생산기술본부 부사장을 역임하신 김형욱부회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새로운 기술 및 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 회사가 초일류기업으로 매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태양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 회사가 당면한 문제는 2010년에 현대/기아(자) 품질 5스타 인증업체가 되었지만 항상 발생하는 파렴치불량은 땀흘려 일하는 태양가족 전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무나사산 불량, 이종품 혼입불량, 도금불량,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찍힘불량, 라벨부착 오류 등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로 인한 크레

임비용 지불 등은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품의 품질은 태양금속 가족 여러분의 자존심이며 생명과도 같습니다.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품질불량 제로를 위해 우리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여 우리 회사의 꿈인 그랜드 품질5스타를 꼭 달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

세계경기의 불확실성과 국내외 시장의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환경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며 성장을 위한 도전과 혁신을 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태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올해의 경영방침을 "새로운 도전과 변화로 새로운 비젼을 창출하자!"로 정하고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과 태양가족간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기업문화를 창출하여 본격적인 성장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다 치열해진 시장환경속에서 생존을 넘어 도전할 수 있는 의지와 혁신의 자세를 통해 영업, 가격, 기술, 품질 등 사업 경쟁력을 갖추어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타사 대비 경쟁우위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태양가족 임직원의 열정과 화합된 힘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회사의 발전과 자동차부품회사의 Global Top을 위해 성장 드라이버를 더욱더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본부별, 팀별, 팀원 개개인이 맡은 업무를 110%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주시고, 직원간, 부서간 벽을 허물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태양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가족 여러분!

2012년에 우리 회사는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꿈인 매출액 1조원 달성의 기반을 우뚝 세우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사 및 계열회사의 매출액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회사의 꿈인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태양금속공업이 창립된지 58년이 되는 해이며, 2014년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회장인 저는 내심 몇 년전부터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인 2014년에는 회사 매출액을 1조원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2년 올해부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김형욱부회장 주관으로 '매출 1조원 달성 TF팀' 을 결성하여 매년 20%이상 매출 신장을 올리게 된다면 2014년에는 무난하게 매출 1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거라 보고, 회장의 꿈과 태양금속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출 1조원을 하겠다는 슬로건만 가지고 안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제품개발과 사업 다각화 및 신규업체를 개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변화에는 밖에 보이는 부분보다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수에서 헤엄을 치며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백조도 그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물속의 물갈퀴는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면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그 만큼 보이는 부분보다는 안 보이는 쪽에서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2014년에는 매출액 1조원이 꼭 달성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원간 또는 부서간 나아가 회사간에 불협화음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불교경전인 화엄경에 나오는 법문중에 "一卽多 多卽一" 이라는 핵심구절이 있습니다. 뜻 풀이를 하면 "一卽多"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多卽一"은 전체부분은 하나를 위한다' 라는 뜻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 조화를 이루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합하고 조화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회사를 만들어 주시면 회사는 여러분에게 적절한 보답을 하는 2012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와 그 이후의 태양금속의 발전이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기원해봅니다.

끝으로 금년은 60년만에 온다는 흑룡의 해로 화룡점정하여 회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태양금속의 VISION 및 경영이념

비전 품질과 기술로 존경받고 인류에 공헌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

경영목표 신성장동력 개발로 2015년까지 1조원 달성

경영이념 신뢰와 창조

핵심가치 신의 / 신용 / 실력

전략
- **세계화** : 해외영업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영
- **다변화** : 신성장 동력 개발로 제품 및 시장 다변화
- **차별화** : 원가 및 품질 혁신을 통한 가치 차별화
- **相生화** :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 실행방안
- **품질우선**
- **원가혁신**
- **적기공급**
- **미래창조**

2012년도 경영방침

2012년은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체제의 강화와 함께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개발해야 할 시기인 바, 전 직원이 모두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경영목표인 '1조원 달성'을 이루고자 아래와 같이 경영방침을 정한다.

– 혁신의 원년 –

새로운 도전과 변화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자!

◆ 품질 강화

- 글로벌 품질 강화로 경쟁우위 확보 : 고객 및 주요 품질지수 "0" PPM 달성
- 품질 그랜드 5스타 달성
- IS014001 및 ISO/TS16949 등의 품질 경영 시스템 심화
- 글로벌 고객들의 요구(Global Automotive Requirement) 적극 반영
  - 국제 품질 규격 표준의 적용을 통한 시스템 Up-Grade
  -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 인증 획득 및 준수 독려 / 지속적 모니터링

◆ 기술력 극대화

- 글로벌 기술 경쟁력 : 신기술/신공법/신소재 개발로 특허/산업재산권
-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 활성화
- 친환경/초경량 첨단 소재의 개발 및 접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부가가치 아이템 중점 개발 및 업무 부가가치 창출

◆ 수익성 혁신

-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원가절감 추진
  - 철저한 통제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원가절감 극대화
- 생산성 향상, LOSS 절감, 품질 2배 향상으로 제조원가 DOWN
  - 지속적 현장 개선 활동을 통한 유/무형 효과금액 극대화
- 협력업체 품질/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한 Win-Win 체제 확립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각종 원부자재 비용 절감
- 향후 수익성을 고려한 영업 수주 활동 강화

◆ 매출 증대

- 매출 극대화 : 2012년 매출목표 달성_해외법인 및 관계사 포함
- 신규 매출 증대_신제품 적극 수주 및 개발 역량 극대화
  - 신규 고객사/신제품 아이템 매출 극대화 : 공격적 수주 전략 수립
  - 시장 다변화 : 항공/조선/전자/건설 등 비 자동차 분야 신규시장 적극 개발

◆ 사업 다각화

- 미래 수익사업 지속적 발굴 및 미래상 제시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단위 프로젝트별 사업성 검토
- 사업 다각화를 통한 한계 극복
  - 가공 및 조립/모듈 사업 본격 진출: 인도 TSP 사업 확대
  - 현양 · 신일정공:조기 안정화 및 조향부품 전문 기업으로의 경쟁력 강화
  - 썬테크 : 영업력 강화로 가공 전문기업으로의 사세 확장
  - 장가항 OBJ/본사 Parts라인 등의 생산력 강화
- 신규사업 개발 조직의 활성화 : 전문성/창조성 배양
- 미래 성장 산업, 친환경/대체 에너지 분야 적극 진출
- 사세 확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수직 계열화 모색

◆ 글로벌경영프로세스 정착

- 글로벌 정보 공유 및 표준화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수익 극대화
  - 해외법인 수주/생산/판매의 전략적 운영 :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해외법인의 현지화 강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
  - 현지 자립도 향상을 통한 매출/사업 규모 등 확장 및 수익 구조 개선

◆ 내실 경영 강화

- 고객 만족 최우선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가격 경쟁력 확보 : 전사적 VE활동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 제품 및 원부자재 재공/재고 최소화
- 프로세스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 원칙과 기본 프로세스의 철저한 준수 및 미래 지향적 변화 추구

◆ 기업문화 고취 및 인재 육성

- 태양 가족문화 계승 및 발전
- 공정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 확립
- 창조적 인재 개발
- 개인별 역량 강화
- 부문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립 및 업무 스피드 향상

글 옥은희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금속’
몸으로 보여준 원로들

(이웅규 삼일공업사 대표)

(김운학 고려상사 대표)

(채명철 영일공업사 대표)

(김덕재 천우기공 대표)

태양맨들은 유난히 관계가 끈적끈적하다. 퇴사한 OB들도 다양한 모임을 통해 끈끈한 유대를 유지한다. 어디 퇴사 직원들뿐이랴. 15년 이상 재직한 태양가족도 ‘태양OB회’에 가입해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늘 함께 나눈다.

지난 12월 13일 만난 ‘태양 OB회’의 주축 멤버 김운학(회장, 60, 17년 근무), 김덕재(62, 28년 근무), 이웅규(총무, 61, 25년 근무), 채명철(65, 29년 근무) 선배들의 얼굴은 Old Boy라는 뜻을 무색케 할 정도로 어린 소년같았다.

태양금속의 성장을 함께 했던 노장들, 조금은 고단했던 삶 속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자랑처럼 할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제 직원은 아니지만 누구 못지않게 회사를 사랑하고, 지나온 시절에 대해 두고두고 아직 할 이야기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탄했다.

세상의 많은 기업들이 혁신과 변혁을 외치지만 태양금속에서만큼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가족문화를 모티브로 한 기업문화.

“고 한은영 회장님과 임직원들은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회장님과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할라치면 늘 집안에 무슨 일은 없는지 물어봐 주셨죠.” 이웅규 선배의 말이다.

“아 그거 생각나? 의료보험이 안 되던 시절에 이대부속병원을 지정병원처럼 드나들었고, 회사에서 치료비도 지원해줬잖아(채명철 선배).”

“다들 이건 모를걸. 나는 말이야, 결혼할 때 신혼집을 못 구해 한 회장님을 찾아뵈었더니 선뜻 전셋집을 구해주셨다구.(김덕재 선배)”

저마다 가슴속에 간직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다. 이런 가족문화 덕분에 태양금속 직원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더 똘똘 뭉칠 수 있었다.

“84년 그해 여름 물난리가 났었죠. 회사 근처에 살던 직원들의 집도 모두 잠겼구요. 그런데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집안에 흘러넘치는 물은 아랑곳 않고 죄다 회사로 달려온 거예요.

여길 먼저 살려야 한다고. 그때 부인들이 많이 당황했을걸." 김운학 선배의 말에 다들 왁자한 웃음을 터뜨린다.

"설상가상으로 불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쌓아놓은 신용이란 게 이럴 때 힘을 발휘하는거죠. 온갖 거래처에서 와서 복구를 도와줬어요. 전기 콘트롤 박스를 갖다 주고, 전화기 선로를 깔아주고..(김덕재 선배)"

다른 곳은 몰라도 의리의 태양금속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직원과 거래처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로 묶어준 것이다.

의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한때 사훈이 〈자나깨나 신용제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도 어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유지해나갔다.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러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대금을 지불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거래처에서도 물건 납품 대금을 맡겨놨다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씩 출금해가는 경우가 많았다. 오죽하면 회사 경리팀에서 전화를 걸어 얼른 찾아가라고 할 정도였을까. 태양금속은 절대로 돈을 떼일 곳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테다.

모였다하면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나이를 먹을수록 동창 모임에 가보면 번듯한 직장이 있는 친구보다는 이런저런 일로 소일하며 지내는 친구가 더 많다. 정년을 마친 이는 '호상(好喪)'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하지만 태양금속만큼은 유난히 장기근속자들이 많다. 본사에서 근무하는 640명의 직원 중 48%가 10년 이상 근무 중이다. 또한, 생산라인 강춘길(72) 선배처럼 퇴사한 후에도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18명에 이른다. 노장들의 자부심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 쪽에서 충분히 수용한 덕분이다.

인터뷰에 응한 선배들도 모두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태양을 사랑하는 중이다. 그래서일까. 얼마 전 제48회 무역의 날 1억불 수출탑 수상 얘기가 나오자 주위의 얼굴들이 더 환해졌다.

"자랑스럽죠. 거기다 인도, 북미, 연대, 장가항 등 세계 곳곳에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덕분에 우리도 일감이 많고 말이야. 하하(채명철 선배)."

"후배님들에게 지금처럼 쭈욱 자기의 일을 사랑하란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일하면서 힘들 때 분명히 있지요. 그럴 땐 언제든 선배들을 찾아와요. 소주 한잔 사줄테니(김운학)."

언제까지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선배의 약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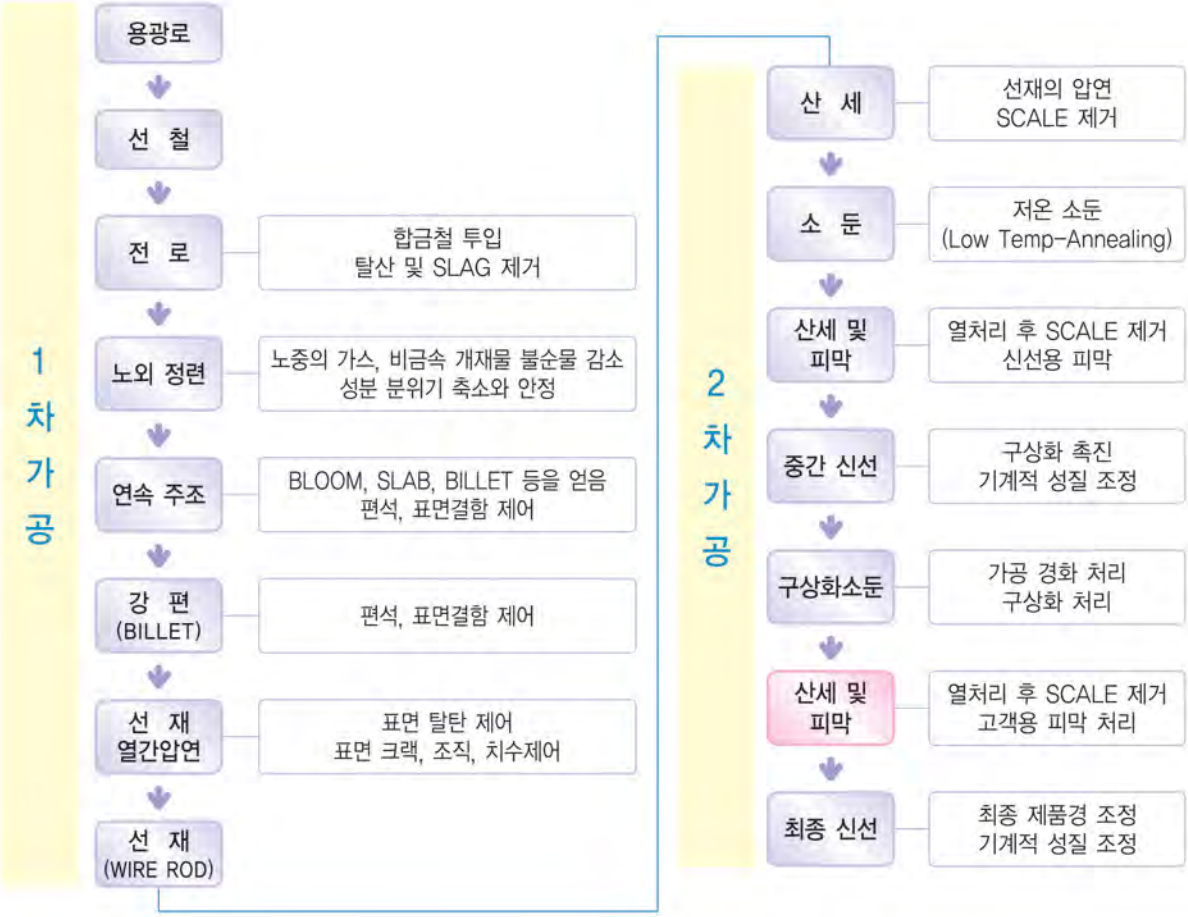
혹자는 인생은 축구 경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25세까지는 연습기간, 50세까지는 전반전, 75세까지는 후반전, 100세까지는 연장전이다. 그런데 '인생의 결승골'은 후반전이나 연장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태양금속을 떠났지만 아직도 태양금속 식구이기를 자처하는 '태양OB회' 선배들의 인생도 그러할 것이다.

글 설계개발팀 주임 이현아

디포스페이팅 (DEPHOSPHATING)

"디포스페이팅 (DEPHOSPHATING)이란 냉간 단조 후 소재 표면에 남아 있는 인산염피막(본데라이트+본데루베), 특히 본데루베의 스테아린산아연(3Zn(C17H35COO)2)을 제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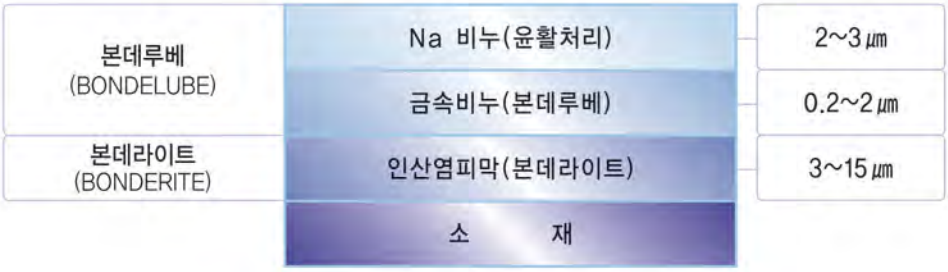
◆ 강(STEEL)의 제조 공정 순서



◆ 인산염피막(PHOSPHATING)이란?

"냉간단조시 재료간의 접촉 압력은 200kg/㎟이상, 가공온도는 200℃이상으로, 공구와 가공물 사이에 높은 압력과 마찰력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공구의 표면 손상으로 부식이 발생되어 공구수명 저하에 영향을 준다. 인산염피막은 화학적으로 금속면을 처리하여 표면에 피막을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금속의 방청과 도료의 밀착성 향상, 금속접촉부분의 내마모성 부여 등의 효과가 있다. 인산염피막처리(본데라이트) 시 내식성과 도장성이 뛰어나지만 마찰계수가 높고 가공에 필요한 미끄럼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인산염 피막시 일반적으로 Na 비누를 기본으로 한 비누윤활처리를 함께 시행한다. 인산아연 피막을 입힌 소재를 비누계 윤활처리액속에 담그면 피막과 반응하여 중간층에 금속비누(스테아린산 아연)를 생성시키는데 이것을 윤활처리(본데루베)라고 한다. 윤활처리는 공구와 소재 사이에 생기는 마찰을 감소시키는 소부(燒付)를 일으키지 않고, 소성가공을 용이하게 한다."

◆ 인산염피막의 결정 조성



부식반응	$Fe + 2H_3PO_4 \longrightarrow Fe(H_2PO_4)_2 + H_2$
피막생성반응	$3Zn(H_2PO_4)_2 \longrightarrow Zn_3(PO_4)_2 + 4H_3PO_4$
표면윤활반응	$Zn_3(PO_4)_2 + 6C_{17}H_{35}COONa \longrightarrow 3Zn(C_{17}H_{35}COO)_2 + 2Na_3PO_4$

◆ 디포스페이팅(DEPHOSPHATING) 처리의 이유

"소성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던 인산염피막에 본데루베 처리를 하면 화학적 반응으로 스테아린산아연(3Zn(C17H35COO)2)이 생겨난다."

〈윤활피막의 메커니즘〉

$$Zn_3(PO_4)_2 + 6C_{17}H_{35}COONa \rightarrow 3Zn(C_{17}H_{35}COO)_2 + 2Na_3PO_4$$

(인산염피막) (스테아린산소다) (스테아린산아연) (인산소다)

제품 열처리 공정 진행 시 인산염피막으로 발생된 스테아린산아연(3Zn(C17H35COO)2)은 분자량이 큰 유기물로 결합(Delta ferrite)되어 있어, 고압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열처리시 고온(870 ° C)에서 소재 속으로 침투(Carburizing)하여 탈탄현상 발생시킨다. 이것은 볼트의 내구성 및 체결 특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열처리 전 디포스페이팅(DEPHOSPHATING) 공정을 통하여 인산염피막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포스페이팅(DEPHOSPHATING)처리 유무 확인 방법

디포스페이팅(DEPHOSPHATING)처리 유무 판단 시 CuSO4(황산구리) 용액을 사용하여 구리(동)도금이 입혀지면 디포스페이팅(DEPHOSPHATING)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구리원소가 철(Fe)과 친화력이 좋고, 이온화 경향에 의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방법으로는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한 확인 방법이 있다.

글 품질보증팀 과장 강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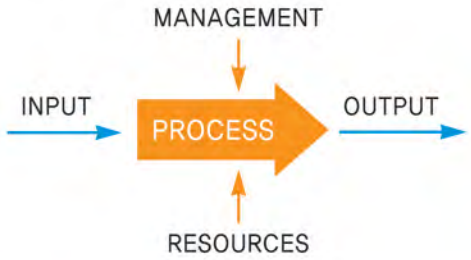
프로세스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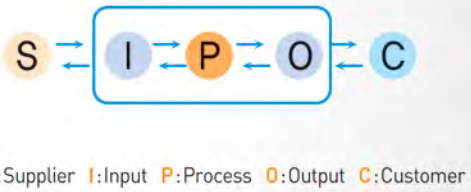
우리회사는 지난 11월 17일~18일 양일간 프로세스 관리자들이 모여 프로세스 접근방법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ISO/TS 16949:2009의 이해는 물론, 팀별 프로세스 입·출력을 재설계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활동의 조합과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향상을 위한 연계성을 검증하여 프로세스 24종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목표인 1) 결함방지 2) 산포와 낭비의 감소 3)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수평전개 측면에서의 프로세스 정의를 다시한번 정리해 본다.

● 프로세스 (Process)

자원을 사용하여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집합(ISO 9001:2008)

- 프로세스로의 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세스의 출력이다.
- 조직에서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가치를 부가하기 위하여 통제된 조건하에서 계획되고 수행된다.
- 결과품의 적합성이 쉽게 또는 경제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경우의 프로세스를 흔히 '특별 프로세스'라고 한다.





● 절차 (Procedure)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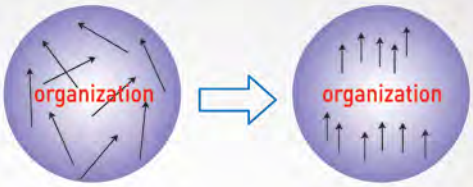
- 절차는 문서화될 수도 있고 문서화 되지않을 수도 있다.
- 절차가 문서화되면 "문서화된 절차" 라고하며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절차서"라고 한다.

절 차	프로세스
과업의 완수가 목적	출력의 달성이 목적
절차의 단계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	프로세스의 단계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
절차는 단속적	프로세스는 연속적
절차의 준수에 초점	이해관계자의 만족에 초점
절차는 과업을 수행하는 연속적 단계	프로세스는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단계
절차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수단의 하나	프로세스는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 프로세스 접근방법(Process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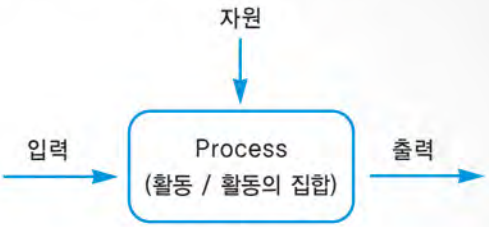
프로세스 접근방법은

-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해 주며
- 모든 조직원들이 목표를 인식하고
-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게 해 준다.



프로세스 파악과 상호작용, 이들 관리와 프로세스로 구성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필요 프로세스의 파악
- 순서/상호작용 결정
- 운영의 기준/방법 결정
- 필요정보/자원의 이용
- 모니터링/측정/분석
- 목표달성 및 지속적 개선



● 우리회사의 프로세스 24종

구 분	NO	문서번호	프로세스명	성과지표	주기	단위	주관부서
경영 프로세스 (MP : Management Processes)	1	TYS-MP-101	사업계획	경상이익율	M	%	전략기획팀
	2	TYS-MP-102	경영검토	지시사항 개선율	H	%	품질보증팀
	3	TYS-MP-103	내부심사	내부심사 실시건수	M	건	품질보증팀
고객지향 프로세스 (COP : Customer Oriented Processes)	4	TYS-COP-201	영업관리	매출목표 달성율(국내)	M	%	영업관리팀
	5	TYS-COP-202	해외영업	매출목표 달성율(해외)	M	%	해외영업팀
	6	TYS-COP-203	신제품개발	개발 납기준수율	M	%	설계개발팀
	7	TYS-COP-204	공정관리	공정 UPH(인당생산성)	D	kg/MH	생산기술팀
	8	TYS-COP-205	변경관리	4M변경 타당성 검증율	M	%	품질관리팀
	9	TYS-COP-206	납품/물류관리	항공 용차 발생비용	M	천원	영업관리팀
	10	TYS-COP-207	고객불만처리	고객품질	M	건	품질보증팀
	11	TYS-COP-208	고객만족도조사	A/S 납기 준수율	M	%	영업관리팀
지원 프로세스 (SP : Support Processes)	12	TYS-SP-301	문서/기록관리	문서관리 평가점수	Y	점	총무교육팀
	13	TYS-SP-302	교육훈련	인당 교육시간	M	HR/인	총무교육팀
	14	TYS-SP-303	구매관리	신규개발품 금형납기	M	일	구 매 팀
	15	TYS-SP-304	공급자관리	원가절감 비용	M	천원	구 매 팀
	16	TYS-SP-305	생산관리	영업계획대비 생산율	M	%	생산관리팀
	17	TYS-SP-306	설비관리	설비 정지(강도)율	M	%	생산기술팀
	18	TYS-SP-307	금형관리	금형 대기시간	M	HR	생산개선팀
	19	TYS-SP-308	검사업무	검사 오검율	M	PPM	품질관리팀
	20	TYS-SP-309	시험업무	의뢰대비 시험완료율	M	%	품질관리팀
	21	TYS-SP-310	계측기관리	교정 준수율	M	%	품질관리팀
	22	TYS-SP-311	부적합품관리	유효성 검증율	M	%	품질관리팀
	23	TYS-SP-312	지속적개선	시정/예방조치 완료율	M	%	품질보증팀
	24	TYS-SP-313	환경관리	오염물질 처리비용	M	원/kg	경영환경팀

*프로세스 열람방법 : 그룹웨어 → 자료실 → 사규 → 프로세스

溫故知新

옛 교훈 속에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태양금속 창업의 정신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았습니다.

전통은 대체로 무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실체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한 기업의 문화나 독특한 시스템 역시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 진 것이지만 우리가 쉽게 체감하지는 못한다. 오늘날에는 품질관리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고 잘 발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설계자가 있어야 가능했다. 현재 태양금속의 고도로 정비된 품질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오래전에 품질관리 시스템이 시작되고 있었다.

#에피소드1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공장관리의 기본자세로 공장의 청결이었다. 3정5S운동의 핵심인 '청소는 청결을 낳고 청결은 정돈을 낳는다. 결국 정돈은 능률을 낳는다'는 원칙은 지금도 태양금속의 품질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품질관리의 기본이 '청소'라니 좀 싱겁다. 하지만 청소를 통해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 정갈함 외에도 마음을 정돈하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 온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작업환경은 집중도를 높이고 이는 결국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일종의 Mind Innovation인데 태양금속은 이미 오래전에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피소드2

태양금속의 품질관리와 생산관리의 시작은 창립 초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은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태양금속의 가족적인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장 새마을운동, QC활동, 3정5S운동, TQC운동, TPM운동, 제안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

이미 창립 초기에 품질관리와 생산관리를 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새마을운동과 같은 사회적 정신운동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새마을운동은 잘 알려져 있듯이 기업이나 학교와 같이 여러 단위에 적용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품질, 생산관리에 적용한 것이 독특한 발상이다.

#에피소드3

태양금속의 TQC는 전사원의 창의성, 합리성, 경제성의 추구 능력을 배양시켜, 사원 모두가 자발적인 참여로 성취감을 이루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더 나아가 전 사원과 회사의 일체감 조성을 통하여 체질개선과 품질보증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

이는 회사의 경영방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인력이 과학적이면서도 인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반영하고 있다. 전 사원이 참가하여 회사 각 부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자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오늘날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에피소드4

1990년대 이전까지의 기업경쟁력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이 주요 전략이었고, 이 전략에 맞추어 제안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금까지 기업에 많은 영향과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도 경영환경이 바뀌면 변화 발전해야 한다.

◆◆◆◆

90년대에 이르러 또 한 번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전통이라는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구체화되어 가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선이 제안제도가 머릿수 채우는 제안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또 회사내 얼마나 많은 우수 인재가 있느냐가 회사의 경쟁력인 시대에 이르러, 제안의 방향도 제품 중심에서 인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글 박형진 | 사진 유광식

차가운 금속을 만드는
따뜻한 사람들의 열정!

선진금속 홍성협 대표

한 겨울의 추운 날씨. 얼마 전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얼어버린 공단의 골목길을 지나며 선진금속에 찾아갔다. 날씨만큼이나 차가운 금속들이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함께 있는 곳. 하지만 그곳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기본을 지키면 품질은 따라온다

//

2000년 창립한 선진금속은 2003년부터 테이퍼플러그를 시작으로 태양금속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는 전자용 콤프레샤 등 80여개의 제품을 태양금속과 거래하고 있다.

수많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진금속은 품질경쟁력을 갖추어야 했다. 홍성협 대표는 선진금속을 이끌어오면서 '기본을 잘 지키자'는 신조를 갖고 있었다. 홍성협 대표의 소신은 품질향상으로 이어졌고, 고객들이 먼저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품질로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매일 기본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태양금속에서 3년 연속 품질 우수상을 받았던 것도 기본을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최근 품질 개선으로는 후렌지 볼트 '대각' 개선이 가장 많다. 제조 원가는 많이 들지만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법을 변경해서 작업하고 있다.

'지혜를 내자. 땀을 내자. 최고의 품질을 위하여'

신뢰 가득한 풍경

///

선진금속의 역사나 기술력을 이야기 할 때보다 홍성협 대표가 더 밝게 목에 힘을 주어 말하는 부분은 직원들에 관한 것이었다.

"선진금속에는 12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분위기가 가족처럼 매우 좋은 것이 선진금속의 자랑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있으며, 자기 업무가 먼저 끝나더라도 스스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나누어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기도 합니다."

공장이 바쁠 때는 대표 스스로도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과 함께 야간작업을 하고, 언제나 회사를 위한 삶을 살다보니 가족들에게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한 가족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12명 직원과 그 가족들의 가장이기도 한 선진금속 대표로서의 책임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서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선진금속의 공장장 김준석 상무는 공장을 둘러보던 기자들에게 회사의 분위기를 전해주었다.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직원들의 사적인 어려움까지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업 후에 나오는 고철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거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이러한 선행을 보는 직원들이 하나같이 회사에 애정을 갖게 됐습니다."

선진금속은 대표와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있음을 물씬 느낄 수 있었다. '일의 목적은 고객에게 사랑받는 것이며 또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공장 내부에 게시된 슬로건 역시 직원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된 선진금속의 직원들은 업무 전반에서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차가움이 따뜻함으로

////

어느 공장들도 그렇겠지만 선진금속의 공장 역시 대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시끄럽다. 한 겨울의 추위는 공장 내부로 스며들고, 한 달에 천만 개씩 생산된다는 나사들도 차가운 쇳소리를 내며 하나씩 하나씩 박스에 쌓여간다.

그런데 차가움이 가득할 것 같던 공장에서 따뜻함이 느껴진다. 휴게실에 잔뜩 있는 간식에서 직원들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고,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여유가 느껴진다.

공장 안에는 또 하나의 슬로건이 붙여져 있다.
'지혜를 내자. 땀을 내자. 최고의 품질을 위하여'
기본을 중시하며 품질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따뜻한 직원들.
선진금속에 가면 차가움을 이기는 따뜻함을 만날 수 있다.

글 조충현

웃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명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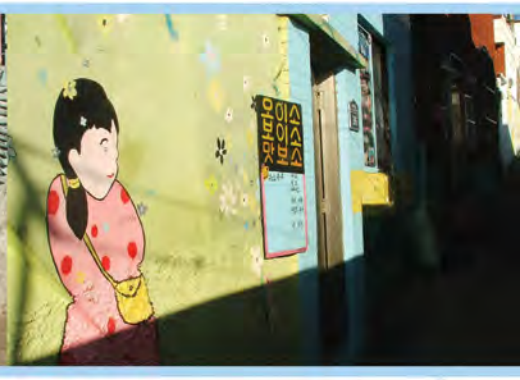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아마 웃음이 금지된 사회일 것이다. 웃음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자 또 결과이기도 하다. 웃음을 금지하는 것은 대화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끔찍할 것이라는 의미다.

최근 KBS 개그 콘서트의 '애정남'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던 개그맨 최효종이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주연의 또 다른 한 편의 코미디라고 말하고 있다. 김미화는 "국회의원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라며 "그러면 고맙지. 우리는 원래 웃기는 사람들이니까"라고 최효종에게 말했다고 한다. 또 진중권 교수는 국회의원이 너무 웃긴다며 최효종에게 영업방해로 맞고소 하라고 우스개 코치를 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의 경직된 자세를 웃음으로 받아 넘기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웃음의 효용성이 아닐까?

코미디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근대 사회에 들어 대중화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판소리나 별신굿 등을 통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코미디 장르는 이른바 몸 개그로 불리는 슬랩 스틱(Slapstick Comedy) 코미디일 것이다. 몸 동작에 비중을 두는데 지금은 작고한 배삼룡이나 심형래 같은 코미디언들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 분야의 걸출한 인물은 찰리 채플린이다. 그는 특유의 동작으로 무성영화 시대를 풍미하며 슬랩 스틱을 통한 사회풍자로 많은 갈채를 받았다. 이런 면에서 찰리 채플린은 어두운 사회의 이면을 들추는 블랙 코미디(Black Comedy)의 범주에 드는 배우이기도 하다. 물론 코미디는 영화의 형식을 빌어 진화해 갔고 더 이후에는 뮤지컬과 텔레비전의 시트콤 이라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고유성을 개그라는 이름으로 남기게 되었고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형식은 대체로 개그 형식이라 할 수 있다.코미디이든 개그이든 본질은 웃음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웃음을 인정하고 유통하도록 허용하는 문화가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대체로 웃음은 풍자를 동원하는데 풍자는 그 성격상 강한 대상이거나 권위적인 주체여야 한다. 풍자의 대상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 또는 재벌 기업가들이 주요 대상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한마디로 대중들의 평범한 크기에 비해 그들은 훨씬 높고 커다란 존재여야 풍자가 성립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풍자는 아래에서 위로 성립되지 위에서 아래로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웃음이 존재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자칫 단절될 수 있는 계층간의 위화를 웃음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로 웃음과 풍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회에 대한 약간의 의견제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같은 대중들의 의견 표출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회는 경직된다. 시쳇말로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여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중은 권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우스갯소리도 할 줄 알고 남의 비아냥도 허허롭게 넘기는 모습에서 더 존경심을 갖는다. 그러니 저명 인사들은 자신에 대한 풍자를 즐기고 웃어 넘길 줄 알아야 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쪽빛 위 청색 잉크 한 방울, 그 가장자리에 빛나는 '코발트블루'의 바다 통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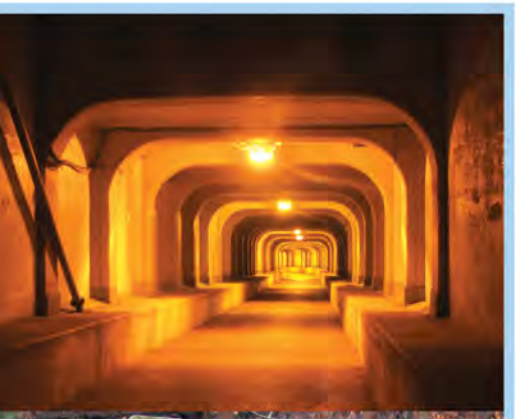
강구안 항구
동피랑 마을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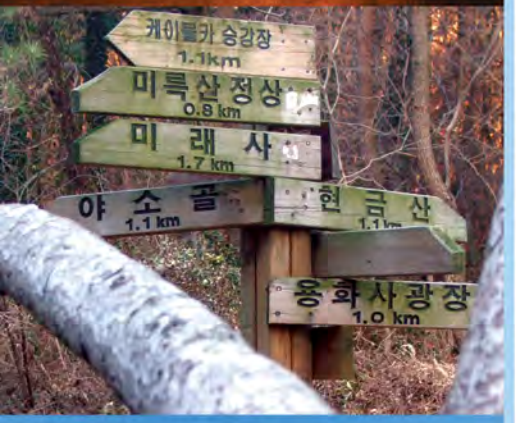
동양의 나폴리 항구 '강구안'

– 잊고 있던 우리의 언어를 만나다 –

莫연히, 떠올린 두 글자 '통영' 無작정, 통영행 버스에 오르다. 無릇, 여행이라는 말에는 심심찮은 설렘이 동반한다. 無심코, 마주한 바다는 쪽빛으로도 에머랄드빛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푸르름'이다.

통영 버스터미널에 내려 관광안내소에 도착해 지도 한 장을 손에 넣었다. 언제나 홀로 떠나는 여행에선 지도 한 장이면 충분한 무언가가 가득 차오른다. 설렘 가득 숙소가 몰려 있는 곳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버스에 내려 처음 맞보는 향. 그 비릿한 냄샛길을 따라 가다보면 통영의 중심 '중앙시장'과 만나게 된다. 파닥거리는 물고기, 날카로운 칼질 사이로 소리로는 읽히지 않지만, 문자로는 읽힐 것도 같은 낯설지만 낯설지만은 않은 통영 사투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어느새 넓게 펼쳐진 '강구안' 항구를 마주하게 된다. 한 번에 오감이 열리는 순간.
숙소에 짐을 풀어 놓고, 근처 '동피랑 마을'로 향한다. 하나 둘 짝지어 오르는 커플들, 친구들, 모녀지간, 그들의 요란한 카메라 플래시 소리만큼 이미 유명한 관광지가 된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마을이다. 예쁘게 그려진 벽화들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강구안' 항구의 전경이 눈에 들어온다. 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은 잿빛 골목길로도 충분한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다 다시 항구로 내려와 '낭마산 조각 공원'으로 올라가 본다. '충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뒤로 하고 정자에 오른다. 조금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너머로 펼쳐진 바다. 누군가와 함께여도 좋을 그러나 자연 그것만으로 충분한.
'뻥 뚤핀 강구안을 채리보믄 분이 써언하이 가라앉고 그라는기라'





한국의 8경 한려수도 '미륵산' 정상

– 풍경아,
너는 그대로 한 편의 시였음을, 한 폭의 그림이었음을 ……. –

유난히도 밤이 길었던 2011년 12월 23일 이른 새벽 강구안 항구를 따라 '서호시장'으로 향한다. 분주한 새벽시장을 여는 사람들의 입김을 타고 '시락국'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운 후, 미륵산 등반을 위해 항구를 따라 걸어간다. 새끼손가락 끝자락에 매달려 있을 것 같은 초승달과 아침을 알리기 위해 바다 위로 피어오르는 붉고 푸른 빛깔이 교차하는 시간. 한참을 밤과 새벽이 속삭이는 야담에 귀를 대어 본다.

1932년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해저터널로 들어간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이라지만 동양 최초의 해저 구조물이라는 의의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깊은 터널이다. 시멘트로 지어진 차가운 건축물이지만, 그 역사적 깊이만큼이나 길게 이어진 터널 속 빛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포근하게 안아준다.

해저 터널을 지나 '통영 중학교'와 '통영 도서관'을 지나 봉화사 '미륵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다. 미륵산 등산로는 '미래사'에서 오르는 잘 닦인 등산로와 '봉화사' 입구에서 오르는 두 개의 등산로가 있다. 물론 등산이 불편한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보다 쉽게 산을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요한 새벽 공기를 맞보고 싶은 필자는 '봉화사' 등산로로 산행을 선택했다.

밤이 길어서인지 늦은 아침 등산로에는 인적이 없다. 다행히 입구에서 만난 다정한 등산객 부부의 안내를 받고, 고요한 산 속,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산이 내어주는 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그 옛날, 조선 영조 때 지어진 '관음사'를 지나, 고려 도솔선사가 호랑이와 함께 지냈다는 '도솔암'을 지나 미륵산 정상을 향해 발을 옮긴다.

높이 461m의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초행길인 방문자는 조금씩 숨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한참을 앞만 보고 오르다 거친 숨을 몰아 쉴 때쯤 고개를 들었다. 통영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어두운 새벽에 걸어 온 '강구안' 항구 길도, 미처 만나지 못한 항구 반대편 '산양읍'의 전경도 숨이 찰라치면 단번에 그 호흡을 가다듬게 만드는 풍경을 만나게 해준다.

걸음마다에 설렘을 싣고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남해안 일대와 대마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미륵산 정상. 한국의 8경중 하나인 한려수도. 새벽안개를 헤치고 들어오는 그 장관은 '수제비를 떠 놓은 것 같은', '결결이 일어나는 파도~귀로 듣다 앞가슴 열어젖히고 부딪혀 보는 바다'라는 그 어느 시인의 구절도 입을 닫게 만들 뿐이었다. 자연, 그것만으로도 한 편의 시였음을, 한 폭의 그림이었음을……, 고요한 오페라가 펼쳐진다.

해저터널
미륵산 등산로
한려수도

통영여객선
소매물도

천륜을 어긴 연정 소매물도와 등대섬

– 3년, 6년, 9년 삼배수가 되는 해에만 걸어와 만난다는 쌍둥이 남매 바위의 이야기가 걷고, 또 걷다. –

통영여객선을 출발하여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있는 소매물도. 옛 이름 웃매미도. 장군이 말을 타고 있는 형상이라 해서 한자로는 마미도(馬尾島)라 표기 되었다는 섬. 통영에서 그리 짧지 않은 거리에 있는 섬이지만, 통영 주변의 섬들을 가까이 지켜 볼 수 있는 뱃길이다. 지도를 펴 들고 주변 섬들을 찾아보다 뱃머리로 가 통영 주민들께 물으니, 여행 정보지의 활자 보다 더욱 생생한 섬 이야기들을 들려주신다.
어느새 주변 섬 이야기를 듣다보면 소매물도에 도착한다. 소매물도를 넘어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촌락 중앙에 돌계단으로 만들어진 가파르지만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길과 해안 절벽 길을 타고 남매 바위를 지날 수 있는 등산로가 있다. 해안 절벽을 타고 내어진 길에 매료된 필자는 또 다시 홀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아름다운 해안 길을 걷다보면 고작 사람 한 명 지날 수 있는 등산길을 만나게 된다. 그래도 틈틈이 보이는 바다 풍경에 흐르는 땀을 식혀본다. 소매물도 끝 '망태봉'에 올라 광활하게 펼쳐진 남해 바다를 마음껏 감상한 후 멀리 보이는 등대섬을 향해 걷는다. 소매물도를 내려가 물길을 건너 다시 이어지는 등대섬의 계단 길. '오르락 내리락' 사람 마음도 '붉으락푸르락' 어쩌면 쌍둥이 남매의 천륜을 어긴 사랑의 걸음걸음을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많은 예술인들이 태어나 자라고 머문 곳 '통영'
백석 시인의 시 구절처럼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청운의 꿈이여~ 계속되라!!

새로이 태양식구가 되신 신입사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회사와 국가경제의 미래를 짊어 질 양 어깨를 응원합니다. 승진과 전보로 더욱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신 사우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

입 사

09/28
박미나 사원 / 총무교육팀

10/04
박삼영 사원 / 생산3반
이순이 사원 / 제품관리과

10/10
홍덕화 조장 / 생산5팀

10/12
진광종 사원 / 생산1반

10/13
최형준 사원 / 생산1반

10/17
김진훈 사원 / 구매팀
권석원 사원 / 영업관리팀
임성훈 사원 / 검사과

10/19
김제호 과장 / 품질관리팀

10/20
왕지만 사원 / 생산5팀

10/21
김윤중 사원 / 생산2반

10/24
이재원 사원 / SCM과
권진호 사원 / 생산2반
허정호 사원 / 생산개선팀

11/01
이재민 사원 / 제품관리과
박찬일 사원 / 생산5팀

11/07
이재연 사원 / 설비기술팀

11/10
김현우 사원 / 원재료

11/21
윤종오 사원 / 마케팅지원

11/24
이의홍 사원 / 생산5팀

12/01
이민환 사원 / 생산2반
김태현 사원 / 선행개발팀

12/05
박태수 사원 / 생산5반

12/12
전진우 과장 / 품질보증팀

12/14
양지훈 사원 / SCM과

12/16
김순복 사원 / 제품관리과

12/19
신현미 사원 / 품질보증팀
노용준 사원 / 품질보증팀
이호형 사원 / 품질보증팀

인사발령

09/26
최민수 반장 / 생산1팀 → 생산5팀

10/01
송수호 차장 / 영업1팀 울산영업소장 직무대행 → 영업1팀 울산영업소장

10/06
정용훈 대리 / 전략기획팀 → 총무교육팀

10/24
정동찬 전무 / 현양 · 신일정공 총괄 전무 겸무
최동배 차장 / 전략기획팀장 → 현양 · 신일정공 경영지원팀 업무 총괄 파견
심상진 차장 / 전략기획팀장

11/01
황정필 반장 / 생산5팀 → 생산1팀
이명희 사원 / 생산1팀 → 생산5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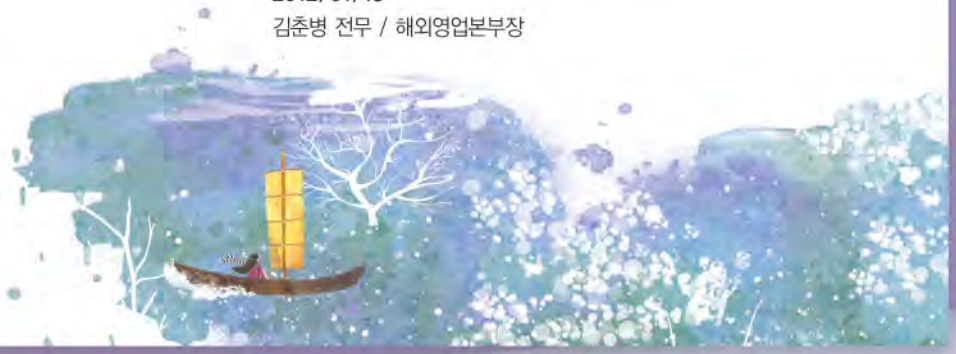
11/07
조명조 사원 / 영업관리팀 → 영업1팀
전명국 과장 / 인도현지법인 파견근무
김영창 직장대리 / 인도현지법인 파견근무

11/14
임태규 사원 / 연대태양금속유한공사 주재원근무

12/19
이창우 과장 / 연대태양금속유한공사 주재원근무

12/26
이준우 사원 / 태양금속장가항유한공사 주재원근무

2012/01/19
김춘병 전무 / 해외영업본부장



http://www.taeyangmetal.com

家族

"행복한 가족주의"

태양금속은

변치 않는 믿음과 변치 않을 사랑으로
한결 같이 걸어온 가족애가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 그리고 직원 가족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반세기를 걸어온 기업정신이 있습니다.
환한 미래를 열어갈 신뢰와 창조의 정신으로
百年大計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50年 半世紀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기업- 태양금속공업(주)

since 1954

TAEYANG METAL
INDUSTRIAL CO., LTD.